

15 대덕구 친환경 농로 개설

2개 마을
119명 소원 들어주다

사업 목적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사업 기반 및 편익 복지 시설을 정비해 농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사업지	대전시 대덕구 상용호동과 하용호동
예산	8억6000만원
사업 내용	도로 개설 1.8km, 노폭 4.5m(인도 겸 자전거도로 포함)
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업기간	2009. 1 ~ 12

❁ 의미

용호천따라 생태도로 탄생하다

2010년의 경제계 화두는 '소통'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종교, 학계, 정계 등 각계각층의 소통 부재 얘기도 나왔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에 새로 생긴 친환경 농로 개설은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지역 주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 사례이기도 하다.

대덕구 상용호동과 하용호동은 각각 인구가 75명, 44명밖에 되지 않는다. 상용호동은 국도 32번과 연결된 금강 쪽이고, 하용호동은 상용호동 쪽에서 금강 지류로 이어져 남쪽으로 흐르는 용호천의 아래쪽에 있다.

두 마을 사람들이야 고작 119명이고, 거리는 불과 1.8km밖에 안 된다. 그런데 비만 오면 소통이 쉽지가 않았다. 용호천을 따라 나 있는 흙길은 번번이 무너지거나 질퍽거리며 사람들이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두 마을을 이어주는 다른 길이



있지도 않았다. 독 길이 싫다면 남의 논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걷는 것도 불편한데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 때문에 용호천 길 정비는 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원이었다. 발뒤꿈치를 든 채 손을 흔들며 외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1.8km의 거리였지만, 비나 눈이 오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흙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19명의 소원은 풀렸다. 대덕구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흙길을 정비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시작될 즈음 단순히 콘크리트로 농로를 포장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도로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구청 직원들로부터 나왔다.

일단 도로는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만들지만, 인도와 요즘 대세인 자전거도로를 겸할 수 있게 설계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너비 4.5m의 멋진 용호천 길이 탄생한 것이다.

인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차가 서로 마주쳐 지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 도로 폭이었다. 그래서 곳곳에 차량 교행을 위한 대기 도로를 만들어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하천 쪽으로는 식생블록을 설치했다.

블록 사이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배려하는 한편, 비가 와도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용호천에는 어도도 만들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포장도로 사이의 곡선 구간과 마을 진출 입구에는 야간 유도 시설이 부착된 안전난간도 설치했다. 이 난간은 서울숲 도로, 워커히호텔 주변 도로 시설물, 경춘고속도로에 적용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용호천과 도로 사이에는 왕벚나무도 심었다. 10여년이 흘러 벚나무가 자라면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용호천변 도로 정비는 비록 1.8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소통’의 중요성으로 보면 119명의 소원을 이룬 훌륭한 사례의 하나다.



❁ 또 다른 효과

자전거 도로로 대청호까지 연결시키다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포털사이트를 보면 아예 '자전거도로'가 나온다. 전국의 유명한 자전거도로가 모두 나올 정도다.

대전에도 유명한 자전거도로가 두 군데 있다. 갑천도로는 23km이고, 유등천도로는 13km다. 그러나 이제 전국 자전거도로에 용호천도로를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 용호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은 겨우 1.8km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도로가 금강 쪽 도로와 T자 형으로 만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경우 바로 대청호유원지로 연결된다는 점이 이 도로의 매력이다.

거리도 멀지 않다. 약 5.5km다. 용호리 마을 주민들은 자전거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청호유원지에서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유원지에는 체육 시설과 위락 시설도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는 '정원'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대청호유원지로 가는 길은 봄철이면 벚나무와 들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용호천변 길까지 연결됨으로써 상용호동과 하용호동을 이어주는 이 도로는 매력적인 길로 탈바꿈했다.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성과 진단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성공 요인

미션

그동안 관리가 잘되지 않아 미관, 안전, 효율 면에서 낙후된 농로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과 농기계 이동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미션이다.

고객

1차 고객은 대상 지역의 자경 농민이다. 2차 고객은 이 도로를 산책하거나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까지 포함한다.

성과

최대 성과 목표는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농사를 지으러 이동하거나 여가 목적으로 걸을 때 보다 넓고 쾌적한 길을 제공하려는 의도다. 한편 양적 성과 목표는 매년 연장과 노폭이 정해진 일정 구간을 빠짐없이 모두 완공하는 것이다.

질적인 성과는 자명하다. 굳이 만족도 설문을 하지 않아도 삶의 질 향상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적 성과 목표인 공사 진척도는 차질 없이 이뤄졌다.

사업의 간접적 파급 효과는 바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금강 일대의 로하스 해피로드뿐만 아니라 신탄진 지역과도 연결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주 환경도 향상됐다.

[피터 드러커의 CARA 방식에 의한 사업 성과 진단]

대덕구 친환경 농로 개설 CAIRA 평점 분포

47점

Concentration

거주 농민의 편의성 확보에 집중

Abandon

특별히 포기한
내용은 없음

Analysis

주민 의견 수렴,
여타 지방도로 설계 방식
견학 및 분석

Innovation

생태적 관점을 추가해
농로를 농기계 도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의
복합구조물로 조성

Risk-management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부 반발 설득,
외지인을 위한 도로 우려 불식



농민 편의성 최우선 반영

농민의 편의성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다. 주민들은 옹호천 쪽 법면의 경사가 심해 그동안 즐기차게 안전난간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 요구를 가장 먼저 반영했고, 보다 나은 자재와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로 안전난간 설치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I · 혁신 CAIRA · INNOVATION

생태 · 레저도로로 자리매김

기존의 농로 정비 사업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대청댐 주변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와 연계해 대덕 일대 주민들에게 생태레저 도로로 부각됐다. 또한 2차 고객인 외부 보행객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병행해 설치했고, 친환경 식생 블록을 시공하고 왕벚나무를 심는 세심함도 보였다.

자전거도로와 천변에 왕벚꽃나무를 심은 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혁신적 발상이다. 상용호동에서 대청호수 쪽으로 봄이면 대전과 신탄진의 주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오는 대청호 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댐을 볼 수 있고 청남대도 갈 수 있는데다 주변에 선 보기 드문 큰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또한 봄이면 대청호 부근은 자전거와 벚꽃이 화젯거리로 등장한다.

자전거와 벚꽃을 옹호천변 도로 개설에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따라서 대청호를 이용하는 나들이객에게 “여기 옹호천변 도로도 있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벚꽃나무를 평범하지만 혁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숲 · 경춘국도 벤치마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요구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했다. 그 결과 보행 편의성과 안전난간 설치, 미관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놀러 다니는 길로 바뀌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정보 분석 측면에선 서울의 독섬 서울숲, 광장동 워커히호텔 주변 도로, 경춘국도 등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른 지역의 도로 설계 방식을 철저히 분석해서 옹호마을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채택했다. 도로 시공 때도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예산 확보였다. 대덕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광특예산과 지방비, 그리고 교부금 예산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도로 정비 수준을 단순히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콘크리트 포장에 그치지 않고, 생태성과 기능성을 조화시키려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식생 블록, 자전거도로, 왕벚나무길, 안전난간 같은 생태적 기능들이 가미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의 도로 기획안은 군청 직원과 주민의 합작품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도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생태적이며 장기적 관점으로 설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국 완공 후의 경관과 편의성을 접한 주민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다.

